

순천시 국비예산 7000억 시대 열었다

57% 늘어난 7022억원 확보

신규사업 예산만 4208억원

긴축재정 속 전략적 대응 결실

순천시의 예산 확보 총력전에 힘입어 내년 국비 7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순천시에 따르면 2025년도 국비로 전년보다 1530억원(57%) 늘어난 총 702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주요 연례 반복적 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국비로 무려 4208억원을 확보한 셈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와 정부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안만 반영된 상황 속에서도 현안 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주요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음은 물론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국도비 확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국비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사업필요성과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 결실이 라는 분석이다.

주요 신규 현안사업인 ▲순천·구례 광역바이오 에너지 설치사업 (1776억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612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200억원) ▲남도 전통문화 기반 K-콘텐츠 산업화사업 (120억원) ▲순천 동천하구 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120억원) ▲순천시 순천만 용산탐조대 신축사업 사업비 (15억원) 등을 확보해 7000억 시대 개막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계속사업으로는 ▲순천 동천하구(훼손지) 토지 매입 사업 60억원(총사업비 450억원)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사업 21억(총사업비 295억)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10억원(총사업비 80억원) 등도 반영되어 생태복원사업과 민생경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 SOC사업 ▲경전선 전철화 사업 190억원(총사업비 1조 9,848억원) ▲순천 주암(3공구)-보성 벌교 국도 27호선 확장 467억원(총사업비 3,160억원) ▲순천 주암-화순 동면 국도 개량 142억원(총사업비 661억원) ▲순천 송광-화순 동면 국도 개량 102억원(총사업비 1126억원)도 반영되어 시민들의 접근성 증진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향후 정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민생활력, 미래도약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청년공동체 활동

3개 단체 성과공유회 성료

구례군은 지난 17일 구례읍 예술창고에서 2024년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2024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3개 단체(문화대장간, 빨강레몬, 자라는공동체) 소속 청년회원 20여 명과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직원들이 참석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단체가 한 해 동안 진행한 활동을 PPT 발표와 영상으로 소개했다. 발표 후에는 청년회원들이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며 성과를 축하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문화대장간 소속 강나무 회원(2023년 송만갑 판소리 고수 대회 명장부 대상)의 국악가요 축하공연은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례군은 지난 17일 구례읍 예술창고에서 2024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3개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인구청년실 관계자는 "올해 청년공동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예술과 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내

년에는 더욱 활발한 활동과 함께 더 많은 청년공동체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해창만 등 방조제 3곳

개보수 사업비 150억원 확보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로부터 2025년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포두면 해창만(96억원), 남양면 해내(29억원), 대서면 송림(25억원) 방조제 3개소다. 축조된 지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들로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았다. 군은 시행계획 최종 승인에 따라 사업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농경지의 염해 피해와 풍수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광양시 27일까지 내년 동계 청년 인턴 모집

내년 1월 8일 공개추첨 28명 선발

광양시가 '2025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청년 행정인턴은 광양시 거주 청년에게 행정을 이해하고 공직 및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인원은 28명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 청년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지원희망자는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주민등록

등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내년 1월 8일 공개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인원은 광양시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배치되며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5주간 근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2025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797-1994)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친절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 빛낸 올해의 정책 뽑아 주세요

2024년 우수시책 선정 이벤트

참여자 추천 통해 상품권 증정

"곡성을 빛낸 올해의 정책 뽑아주세요."

곡성군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 중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올해의 우수시책을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다.

부서에서 제출한 38건의 후보사업 중 주민 편의 증진도 및 효과성, 창의성 및 전문성, 지속적인 행정 업무 활용 가능성 등 1차 내외부 심사 평가를 거쳐 24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올해의 우수시책 후보사업으로는 ▲가루쌀 생산, 가공 지역자립형 단지 육성 ▲곡성전통시장 직적폭포야시장 개최 ▲취약계층 영양보충지원 농식품 바우처 ▲곡성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경로당 순회 어르신 결핵검진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추진 ▲2024년 공양미 삼백석 의료비 지원사업 ▲누수탐사 서비스 운영, 상하수도 요금 부담 경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사업 ▲만보 시대 무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문화로운 삶을 위한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 ▲곡성어

린이도서관개관 및 운영 ▲곡성물, 농가와 업체의 든든한 지원군 ▲건강과 힐링이 함께하는 걷기 명소 '독방생태공원 황토길'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압록 참깨, 은어거리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지역특화발전 우수특구 선정 ▲새로운 곡성의 미래를 위한 양수발전소 조성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지원프로그램 운영 개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맘이 편한 우리아기와 첫 만남 one stop 서비스 ▲군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군민 행복드림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백세미' 유통 활성화 ▲곡성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및 운영 ▲전국최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장학, 격려금 지원제도 완성으로 이중 우수시책 13건을 주민이 직접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23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지역상품권인 심정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우수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여수시 연말연시 카드형 상품권 15% 특별할인

예비비 투입 127억원 어치 발행

여수시가 탄핵정국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 침체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판매에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 16일 '긴급 민생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 등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예비비(4억5000만원)를 긴급 투입, 총 127억원의 상품권 발행을 결정했다. 연내 27억원을 판매하고, 내년 1월 2일 추가로 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15% 할인 판매가 예정된 200억 원의 남은 물량도 2025년 상반기에 조기 추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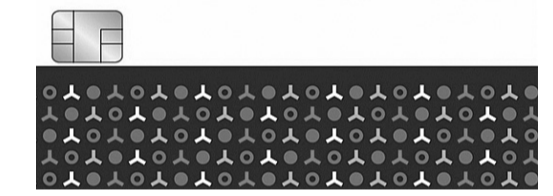
구매는 오는 23일과 내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계획된 발행량이 완판되면 종료된다.

단, 설 명절 맞이 특별할인은 발행량 소진 시 10% 할인 판매로 전환된다.

시는 이번 상품권 할인 판매를 통해 내수 부진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가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설과 추석 명절, 하계 휴가철 등 총 280억 원을 발행(설 명절 70억, 하계휴가철 150억, 추석 명절 60억)했으며,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실시한 15% 특별할인은 판매 개시 이후 11시간 만에 완판됐다.

실제 해당 기간 15% 할인 판매된 카드형 상품



여수사랑상품권(섬섬여수페이).

권 중 87%가 환전됐으며, 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하면서 대부분 소상공인 매출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으면서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5%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서 시민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했다.

시는 올해 시민이 보내준 높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내년에도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섬섬여수페이) 15% 할인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상품권 특별할인은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을 통한 민생 조기 안정에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상품권 발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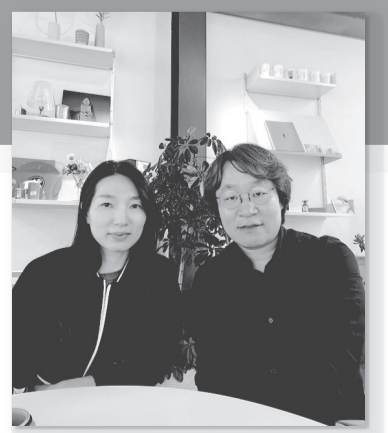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